

# 新羅 百濟 土器의 製作

— 물레成形的 方向에 對하여 —

沈 春 植

## 一 調査動機

三國時代 土器의 種類나 形式, 紋樣等에 對한 研究는 지금까지 상당히 되어있고, 各種 古墳의 發掘報告書에도 土器는 빠짐없이 收錄되어 있어서 一見 三國時代 土器에 對한 研究는 相當히 進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考古學者들이 古代 土器를 論할때 그 形式이나 紋樣이나 硬度나 빛깔만을 記述하는데 그쳤으므로 그것들의 製作過程에 關해서는 아직도 여러 角度에서의 研究가 必要한 것이다.

筆者는 現代陶磁器를 工夫하는 學徒로서 傳統 陶磁器의 제작 過程을 觀察해오다가 傳統 土器中 三國時代 土器를 觀察하게 되었다. 이면 面에서는 專攻分野도 아닌 三國時代 土器의 製作에 對하여 拙見을 내어놓기 悚懼스럽지만 三國時代는 우리의 土器가 그 質面에서 所謂 新羅式硬質土器가 나타난 때일 뿐만 아니라 形式도 多樣하여 後代에 高麗靑磁나 李朝白磁가 있게 한 韓國의 陶藝史上 劃期的인 時代인 것이다. 이 小考에서는 三國時代 土器의 製作過程中에서 물레의 成型方向에 對해서만 考察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쉽게 接할 수 있는 三國時代 土器는 아무래도 新羅土器가 絶對多數였고 그 다음이 百濟土器, 高句麗土器의 順인데 그 중에서 出土

地가 分明하고 可及의 이면 報告書가 出版된 遺蹟에서 出土된 土器들을 對象으로 하였다. 土器를 成型할때 물레(wheel)가 어느 쪽으로 돌았느냐를 檢討하는 데는 器壁을 관찰해도 나타나기도 하고 목(頸部)을 보아도 알 수 있을 때가 있으나 大部分의 境遇에는 土器의 內壁에 더 잘 나타나 있고, 그 중에서도 內面 器底에 가장 뚜렷이 나타난 例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長頸壺처럼 목이 길거나 大壺같이 속이 깊어서 觀察이 어려운 土器들은 對象에서 除外하였고, 高杯나 甌, 鉢같이 얇고 속이 잘 들여다 보이는 土器들이 主로 調査되었다. 調査에서 土器에 물레가 돌아간 자국이 남아있는 土器들은 大部分이 器壁이 얇고, 손쉽게 다루어질 수 있는 小形土器들에 자국이 鮮明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았다.

圖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릇의 바닥을 들여다 보면 平面으로 中央部에서 밖을 向하여 時計方向(㉔)이나, 時計反對方向(㉕)으로 자국이 있는 것이 있다. 이들중 자국이 時計方向으로 나 있는 것은 물레위에 흙덩이를 놓고 바닥(器壁)↓口緣의 順으로 成形해 올리는 過程에서 물레 위에서 보면 時計의 反對方向으로 돌아야만 생기는 자국이다. 말을 바꾸어 하면 土器匠(Potter)이 一定量의 粘土반죽을 물레위에 놓고 발로 물레를 돌리면서 器形을 만들어 올리는 데 한손은 器內壁面을 다듬으면서 또 한손으로는 器外壁面을 받쳐 올린다. 따라서 器內에 들어가는 손이 中央에서 밖으로 움직이면서 器底部의 두께나 半徑을 決定하고, 그것이 決定되면 손이 아래서 위로 올라오면서 器壁의 두께나 器形을 만든다. 따라서 器內壁 바닥에 土器匠의 손자국이 남는 境遇 中央에서 밖으로 돌아 나간다.

## 二 調査된 內容

이번 調査에는 大學博物館들에 所藏되어 있는 土器中 約 四〇〇點을 檢討하였는데 그들中 물레成形的 자국이 나타나 있고 成形的 方向까지도 알 아 볼 수 있었던 것은 三九點이었다(別表)。 이들 三九點을 出土地別로

보면 慶州의 三國時代 新羅積石塚① 梨大博物館 所藏의 慶州 皇南洞 六〇號 古墳②, 靈岩 內洞里의 甕棺墓地③ 서울 靈室地區 芳蕙洞의 石槨墓와 石室墳④, 서울 舍堂洞의 統一期로 보이는 窯址⑤, 에서出土된 土器들이었다.

別表에서 볼 수 있듯이 慶州出土의 土器들은 時計方向의 反對로 물레成形이 되었고 서울 芳蕙洞出土 土器들도 마찬가지로 時計方向의 反對로 서울 舍堂洞의 土器들도 한결같이 時計方向의 反對로 물레成形이 되었다. 또 全南 靈岩에서出土된 土器들도 물레자국이 分명한 것은 모두 時計方向의 反對로 成形되었다. 한편 慶州 仁旺洞 十九號墳 C 槨에서出土된 赤色土器(圖 4)도 같이出土된 硬質新羅土器와 같이 時計方向의 反對로 물레成形되었다는 事實도 지적하고자 한다. 新羅古墳에서出土되는 赤色土器는 그 胎土가 新羅土器에다 비교하면 砂粒이 많고 粗雜할 뿐만 아니라 빗갈도 新羅土器의 灰色이나 灰青色과는 매우 다른 赤色이라 그 源流가 혹시 新羅土器와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疑問이 있어 왔는데 그 製作過程은 新羅土器와 같은 물레 위에서 이루어 졌다는 事實은 赤色土器 研究에 한 가지 端緒를 提供한다고 보아야겠다.

또 新羅土器만이 時計方向의 反對로 도는 물레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芳蕙洞 四號, 五號같이 百濟古墳들에서出土된 土器들도 新羅土器와 같은 方向으로 製作된 것도 看過할 수 없는 點이다. (圖版 9(11)) 特히 芳蕙洞 五號에서出土된 灰色瓦質 高杯中一點에는 물레 자국만 남아 있는게 아니라 器內面 바닥 中央에 匠人의 손가락이 닿았을 때 남 겨진 指紋까지 鮮明하게 나타나 있었다.

靈岩의 土器들은 大形의 甕棺墓群에서出土되었다. 이들도 물레成形된 方向은 新羅, 百濟古墳에서出土된 土器들과 같은 方向이었다.

調査된 土壺들이 製作된 年代를 보면 慶州 仁旺洞 積石石槨墓들은 古新羅時代, 芳蕙洞 石槨墓와 石室墓들은 四世紀에서 六世紀間에 築造된 것으로 보고 있다⑤. 舍堂洞 窯址에서出土된 土器들은 三國이 統一된後에 것으로 봐야겠고 靈岩의 甕棺墓群의 年代는 三國時代로 보고 있다⑥.

### 三 小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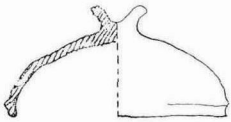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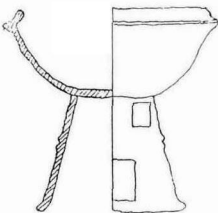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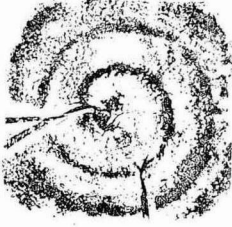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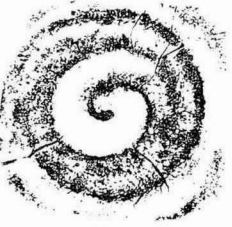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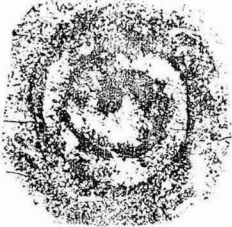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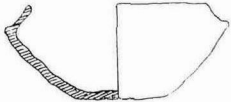
以上과 같은 資料에서 얻어진 內容을 綜合하면 三國時代에서 三國統一期까지의 匠人들은 土器를 만들때 물레를 時計方向의 反對로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古墳人들이나 甕棺使用人들이나 모두 같은 方向으로 물레成形 하였다는 것도 確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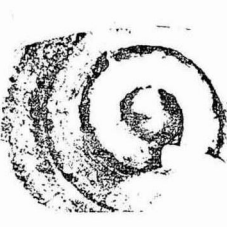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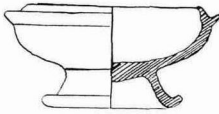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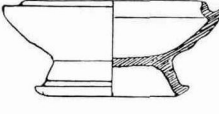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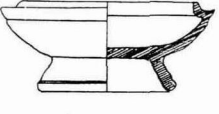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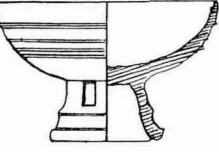

이번 小考에서는 高麗以前의 各種遺蹟의 土器들을 총 망라하지 못한 弱點도 있고 韓國에서 물레使用의 最初時期가 언제부터였던가를 究明하지도 못하였다. 이런 問題들은 다른 機會에 밝혀지게 되기를 바라오 이번 글에서는 위에 지적된 點들이 그 時代를 研究하시는 분들에게 조만 도움이 되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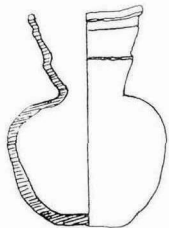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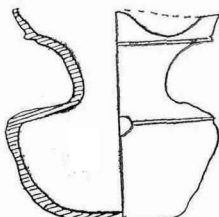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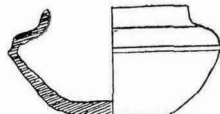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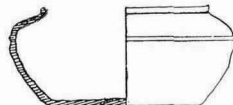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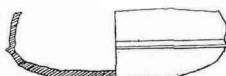
#### 〈註〉

- ① 慶熙大博物館·慶州 仁旺洞(一九、二十號)古墳發掘調查報告 一九七四。
- ② 慶州 皇南洞 六〇號는 一九六六年에 梨花女大博物館에서 發掘하였는데 積石木槨墳이었다。
- ③ 慶熙大博物館·靈岩 內洞里 甕棺墓 調查報告 一九七四。
- ④ 이 窯址는 一九七三年에 發見되었는데 一九七六年 봄에 서울大學이 發掘하였다。
- ⑤ 金元龍外 서울 舍堂洞 窯址의 新羅土器, 申奭鎬博士 古稀論集 一九七三 一~十六。
- ⑥ 註①前掲書 四三~四四와 靈室地區遺蹟發掘調查團·靈室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 一九七六, 四三~四四
- ⑦ 註③에 引用된 二八~二九。

(慶熙大學校 助教授)

出 土 地	土 器 種 類	손 자 국 方 向	備 考
圖版 1 慶州 60號 古墳			梨大博物館 No. 66—60—7
圖版 2 慶州 60號 古墳			梨大博物館 No. 66—60—3
圖版 3 慶州 仁旺洞 19號 D 棟	灰色硬質高杯		慶熙大博物館
圖版 4 慶州 仁旺洞 19號 C 棟	赤色土器有蓋杯		慶熙大博物館
圖版 5 慶州 仁旺洞 19號 D 棟	灰色硬質高杯 (엇 갈린二段透窓)		慶熙大博物館
圖版 6 慶州 仁旺洞 19號 C 棟			慶州 仁旺洞 (19號~20號) 古墳發掘調查 報告圖版 27

出 土 地	土 器 種 類	손 자 국 方 向	備 考
圖版 7 서울사당동	硬質新羅土器破片		서울大博物館 1976년發掘
圖版 8 서울사당동	硬質新羅土器破片		서울大博物館 1976년發掘
圖版 9 서울芳蔘洞 第4號墳			蠶室地區遺蹟發掘 調査報告 1976. 圖版 12—①
圖版 10 서울芳蔘洞 第5號墳			蠶室地區遺蹟發掘 調査報告 1976. 圖版 12—③
圖版 11 서울芳蔘洞 第5號墳			蠶室地區遺蹟發掘 調査報告 1976. 圖版 12—④
圖版 12 서울芳蔘洞 第6號古墳			蠶室地區遺蹟發掘 調査報告 1976. 圖版 12—6

出土地	土器種類	물레方向	備考
圖版 13 靈岩內洞里 第5號墳		時計方向反對	慶熙大博物館 靈岩內洞里 甕棺墓調查報告, 1974 圖版 29
圖版 14 靈岩內洞里 第5號墳		時計方向反對	// // 圖版 25
圖版 15 靈岩內洞里 第3號墳		時計方向(?)	// // 圖版 17
圖版 16 靈岩內洞里 第2號墳		時計方向(?)	// // 圖版 14
圖版 17 靈岩內洞里 第5號墳		時計方向反對	// // 圖版 26

別表

調查對象土器와 물레成形的 方向

出土地	土器種類	물레方向	備考
慶州 仁旺洞 19號 墳C槨	青灰色有蓋杯	時計方向의 反對	慶熙大博物館 慶州仁旺洞 古 墳發掘 調查報告(1974) p.27
// A槨	青灰色高杯(어갈린二段透窓)	//	慶熙大博物館所藏
// B槨	//	//	//

土 出 地	土 器 種 類	물 레 方 向	備 考
慶州 仁旺洞 19號墳 C 槨	青灰色高杯(웃 갈린二段透窓)	時計方向의 反對	慶熙大博物館所藏
" B 槨	"	"	"
" "	高杯蓋	"	"
" "	小形高杯	"	"
" C 槨	赤色軟質土器高杯蓋	"	
" "	高杯蓋	"	"
" D 槨	高杯	"	"
" "	高杯	"	"
" F 槨	赤色軟質土器	"	"
" "	高杯蓋	"	"
" "	高杯	"	"
" G 槨	"	"	"
" "	"	"	"
" "	"	"	"
" K 槨	高杯蓋	"	"
" "	"	"	"
" "	赤色軟質土器	"	"
" 20號墳	赤色軟質高杯	"	慶熙大博物館 No. 3-69(日-308A)
" "	高杯	"	" 3-69(日-291)
" "	有蓋鈕	"	" 3-69(日-292)
慶州 60古墳	高杯蓋	"	梨大博 No. 66-60-7
"	高杯	"	梨大博 No. 66-60-3
"	鈕	"	梨大博 No. 66-60-8-1
서울사당동	新羅土器破片	"	서울大 1976년 發掘
"	"	"	"
서울芳苑洞 4號	灰青色硬質高杯	"	蠶室報告書(1976) 圖版12-①
" 5號	灰色瓦質高杯	"	" 圖版 12-③
" "	"	"	" 圖版 12-④
" 6號	灰青色高杯(一段透窓)	"	" 圖版 12-⑥
靈岩內洞里 5號	灰色長頸平底壺	時計方向의 反對	慶熙大靈岩甕棺報告 圖版 29
"	灰良硬質有孔小壺	"	" 圖版 25
"	灰色瓦質土器蓋	"	" 圖版 26
" 2號	灰色硬質坩	時計方向(?)	" 圖版 14
" 3號	灰色平底坩	時計方向(?)	" 圖版 17